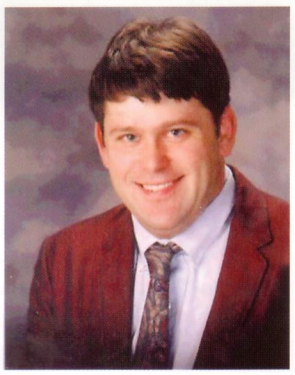
A Rose by Any Other Name:

The Question of Using English Names in English Education



Submitted by: James R. Braw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It is not unusual in language institutes for Korean children to be asked to choose an English name. I have been asked on several occasions if I believe this is an acceptable educational policy. As far as learning is concerned choosing or not choosing an English name will neither directly help you learn English nor will it directly prevent you from learning English. Therefore, using or not using an English name has nothing to do with language learning per se, but adopting an English name may offer other disadvantages or advantages depending on the child.

Obviously names are very personal, and some children do not like being called anything but their real name. Therefore asking such a child to adopt an English name would not be very productive. Although the name by itself would not affect his or her ability to learn English, he or she might not like being required to answer and respond to a new name. Consequently, English class would become an uncomfortable place for him or her, and these feelings of discomfort and hostility would affect his or her desire to learn English.

I can definitely sympathize with this student. I was the youngest of five children. I had two older brothers and two older sisters. Whenever my mother wanted to call or scold me, she would routinely call my older brothers' names first before she got to mine. This perhaps made me more sensitive towards adopting other nicknames. For example, although my real name is James, everyone in my family calls me Jay and it is the name I prefer to be called by my friends and family. In school, however, most teachers wanted to call me Jim or Jimmy. These are the two most common nicknames for James. I always rebelled at being called Jim or Jimmy, because that wasn't my name. Moreover, I tended to get better grades in classes in which the teacher called me by my preferred nickname rather than Jim or Jimmy.

Other children, however, like adopting new nicknames. These children tend to be more imaginative and outgoing and they see adopting a new nickname as being a kind of game. They like the idea of pretending to be someone new or someone different. For these children adopting an English name at an English institute is fun.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worked in an English institute for children. I never asked my students to adopt an English name, however, in some classes more than half of my students wanted to be called by their English names. I always did my best to honor these requests, and I found that these students tended to be the most vocal and talkative children in my classes. This does not, however, suggest that taking an English name alone promotes participation in an English class. What it does point out is that every child is different.

Moreover, a child's feeling about adopting an English nickname can change. For example, I taught Byoung-Hwa for several months. She was a good quiet student, who enjoyed learning and I was a bit sad to see her graduate into the next level. We didn't see each for several months, because she was busy taking level two courses with another teacher. When she started taking the level three-course with me, she asked me to use her English name, Elise. I was a bit surprised at her choice, because Elise had been the name of her former teacher, so I asked her: "Why did you choose the name Elise?" She smiled and said, "Elise was so pretty and funny, I want to be like her."

Some children can easily choose to adopt an English name, other children will never want to adopt an English name at all. For Byoung-Hwa it was important that the name she chose had meaning. Therefore the issue surrounding the use of English names has nothing to do with learning, but everything to do with a student's identity. Every child is different. For some children having an English name is helpful, for others it is uncomfortable. Consequently students need to be free to use the name they are most comfortable with in the English classroom. As Shakespeare so beautifully said in Romeo and Juliet: "What's in a name? That which we call a rose/ By any other word would smell as sweet."

jbrawn@catholic.ac.kr

영어 이름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새로운 영어이름에 대답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어 수업이 불편한 것이 되고 이러한 불편함과 적대감은 아이가 영어를 배우려는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 영어 교육에서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

학원에서 한국아이들에게 영어이름을 선택하도록 요구되는 일은 흔한일이다. 나도 몇 번 이렇게 아이들이 영어이름을 가지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정책인가를 질문 받은 적이 있다. 언어를 배우는 것에 있어 영어 이름을 가지고 안 가지는 것이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방해를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영어 이름을 사용 하건 안 하건 언어 학습 자체와는 상관이 없지만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이들에 따라서는 장점과 단점을 줄 수는 있다.

분명히 이름은 사적인 것이며 어떤 아이들은 자신들의 진짜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려 지는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에게 영어 이름을 가지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영어 이름이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새로운 영어이름에 대답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어 수업이 불편한 것이 되고 이러한 불편함과 적대감은 아이가 영어를 배우려는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는 분명 이런 학생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오 남매 중 막내인데 누나 둘과 형 둘이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나를 꾸짖으실 때마다 내이름을 부르기 전에 형의 이름을 늘 먼저 부르시곤 했다. 이것이 아마 내가 다른 애칭을 가지는 것에 좀더 민감해지게 만들었던 것 같다. 예를들면 나의 진짜 이름은 제임스인데 모든 가족들은 나를 제이라고 부르고 그게 내가 불려지기를 원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나를 짐 또는 지미라고 부르길 원했다. 짐이나 지미는 제임스의 가장 흔한 애칭이다. 나는 늘 이 애칭들에 거부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짐, 지미가 나의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생님들이 짐이나 지미가 아닌 나의 진짜이름을 불러주는 반에서 나는 성적을 잘 받곤 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영어이름을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아이들은 좀더 상상력과 적극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영어 애칭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일종의 게임으로 여긴다. 그런 아이들은 다른 새로운 인물이 되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들에게는 학원에서 영어이름을 가지는 것이 즐겁다.

내가 처음 학원에 왔을 때 어린이 영어 학원에서 근무했다. 나는 한번도 영어 이름을 가지도록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떤 반에서는 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영어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다. 나는 이러한 요구들을 존중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이러한 학생들이 가장 말을 많이하고 자유롭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것이 영어이름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학습 참여도를 높인다고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것은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게다가 영어이름을 가지는 것에 대한 아이의 감정이 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병화라는 아이를 몇 달 가르쳤었다. 그 아이는 조용한 아이였는데 배우는 데에 흥미가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우리반에서 다음 단계반으로 가는 것이 조금은 서운했었는데 그런 후 그 아이가 다른 반 선생님 수업을 듣느라 바빴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볼 수가 없었다. 나와 다시3단계 수업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 아이는 자기에게 엘리스라는 영어 이름으로 불러 달라고 했다. 나는 약간 놀랐는데 엘리스가 전 선생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왜 엘리스라는 이름을 선택했지?"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엘리스는 예쁘고 재미있어요. 나는 그녀 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아이들은 쉽게 영어이름을 채택하고 다른 아이들은 전혀 영어이름을 선택하지 않는다. 병화에게는 그 아이가 선택했던 이름이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영어이름을 사용하는데에 관계되는 쟁점은 영어학습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자아 주체성과 관계가 있다. 모든 아이들은 다르다. 어떤 아이들에게 영어 이름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영어 수업시간에 자기들이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이름을 자유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세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아름답게 표현했듯이 "이름이 지니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rose (장미) 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달콤한 향기일 것이다.